

# 뿌리 내리는 과학도서 시리즈출판

## 단행본형 연속기획물 다투어 선보여... 번역서 치중 한계도

‘당신의 포켓 속에 과학을’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이른바 대중용 과학도서 시리즈의 출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독자들로부터는 어렵고 딱딱하여 보기 싫은 책으로 외면당하고, 출판계로부터는 ‘재미 못 보는’ 분야로 기피되어 왔던 것이 종래 우리나라 과학도서의 실정. 이에 비해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과학도서들은 문답, 예화 등을 활용, 이해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삽화의 이용 등 편집에 있어서도 참신함을 보여주고 있어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계의 ‘기현상’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최근의 이러한 양상이 본격화된 것은 88년 ‘재미있는 물리여행’(김영사)이 독자들로부터 예상 밖의 반응을 얻으면서부터였다. 문답형식으로 물리학의 기본개념을 쉽게 해설하고 삽화를 곁들여 펴낸 이 책은 과학도서로서는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화제를 모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판매되면서 13판을 찍는 ‘이변’을 낳았다.

「재미있는……」의 성공은 국내 과학도서 출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고 이른바 ‘재미있는……’ 류의 출간붐을 선도했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이후로 과학도서를 전문으로 하지 않던 일반 단행본 출판사들이 대거 참여, 시리즈를 기획·출판하면서 쏟아져 나온 과학도서들은 그 내용에 따라 쉽게 씌어진 해설서, 사회주의권의 저작, 새로운 과학이론을 소개한 책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알기쉬운’ 등의 표제를 내걸고 과학에 대한 흥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해설서로는 우선 ‘과학의 초대’(김영사)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재미있는 물리 여행」(루이스 엠스타인 외/ 백운선) 외에, 두뇌의 단계적 훈련을 통해 수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재미있는 수학 여행」(김용운 외), 별자리의 숨은 이야기와 관측법을 상세하고 재미있게 수록한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태형) 등이 출간되어 있다.

‘생활 속의 과학신서’(도서출판 동아)도 이 범주 속에 포함되는 것. 화학의 기본요소인 원소로부터 일상생활에 관련된 화학화제까지 그림을 곁들여 알기 쉽게 풀어 쓴 「일요일의 화학여행」(이반 P. 리로프 외/ 김정흠)이 첫권으로 나왔다. 이밖에 「일요일의 시간여행」(체르닌/ 김정흠), 「철학 속의 과학여행」(베네슈 호

**독자들에게는 어렵고 딱딱하여  
보기 싫은 책으로 외면당하고,  
출판계로부터는 ‘재미 못 보는’ 분야로  
기피돼 왔던 과학도서 출판이  
큰 붐을 이루고 있다. 문답이나 예화,  
그림과 사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서의  
과학도서를 표방한 시리즈물들이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프만/ 최혁순)과 「어느 과학자의 이야기」(김용덕) 등이 있다.

전 15권으로 기획된 ‘현대과학의 초대’(동아출판사)는 과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만화화하고 있는 데 그 특징이 있는 것으로, 현재 「상대성의 세계」 「천문학 이야기」 「블랙홀 여행」 등 3권이 출간됐다.

‘함께하는 과학’(현대과학사)의 「콜롬부스의 달걀」(에디 러너스/ 박성식), 「안개구 박사 수학교실」(일월서각)의 「쉽고 재미있는 수학 세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사회주의권의 과학인식 담은 책도

과학도서의 또 다른 한 분야는 소련이나 동독 등 사회주의권의 저서 또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씌어진 책들을 번역한 것이다. 이들 책은 과학기술이 지닌 이데올로기성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발전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0년대 후반, 사회과학서적의 퇴조라는 위기를 맞은 사회과학서적 출판사들이 보다 다양한 독자들을 겨냥한 출판으로의 방향전환과 자연과학적 인식의 필요성을 이유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이 분야의 시리즈로는 ‘자연과학 문고’(이성과 현실)가 대표적이다. 소련의 물리학자 페레리만의 저술인 「생활 속의 물리학」을 필두로, 만물의 근본을 100여개의 화학원소로 파악하고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의 역사를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는 「흥미로운 화학 이야기」(황근수 엮음) 등 10여권이 출간됐다.

러시아의 과학저술가 일리인이 쓴 「책·세계·등불의 역사」 「집안에 감춰진 수수께끼」(박미옥 역) 등을 내놓고 있는 「교양과학신서」(연구사)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과학도서 출간의 시리즈물화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서울교보문고의 과학도서 코너.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 과학의 본질을 찾게 한다는 것이 기획의도

기초과학의 강국으로 알려진 소련의 대중용 과학도서의 고전으로 인정받은 페레리만의 저술들을 재편집한 「재미있는 이야기 속의 수학 세계」가 첫권으로 나와있는 「과학의 집」(나라사랑)도 여기에 속하는 것. 이밖에 자연과 철학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자연과 철학’(천지)시리즈로 동독의 과학자 H. 히르츠와와 D. 비티히가 저술한 「자연인식과 세계관」(김성환)이 나와 있다.

과학도서의 또 다른 한 분야는 과학이론의 신사조라 지칭되는 ‘신과학’이나 ‘정신과학’에 관련된 책들.

기계론적이고 목적합리주의를 절대시하는 서구과학의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가치중립적 과학관을 인간중심적 가치관으로 전환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신과학’ 이론.

‘신과학 총서’(범양사)는 신과학이론의 성과들을 소개해온 대표적인 시리즈이다. 79년 카프라의 「The Tao of Physics」를 번역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으로부터 최근에 한창 연구되고 있는 천체물리학의 실험과 관측을 상세하게 소개한 「쿼크에서 코스모스까지」(레온 M. 레더만 외/ 이호연)에 이르기까지 총 29권이 나와 있다.

이와 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의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구환경시리즈’(푸른산)도 과학발전의 명암을 인류의 생존과 연결시켜 보고 있는 책들로 구성돼 있다.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天竺啓祐/ 강현 외) 「지구 46억년의 고독」(松井孝典/ 김원식)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대중용 과학도서의 출간붐에

대해 이만근씨(범양사 이사)는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 국내저술 거의 없어 아쉬움

“무엇보다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입시위주의 과학교육에 갈증을 느낀 독자들의 요구와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과학대중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도 이 분야 책들의 출간을 서두르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분야가 국내에서는 아직 미개척분야라는 점도 많은 출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출판을 가속시켰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출간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처럼 얻게 된 과학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과학도서 출판이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없지 않다. 박성래교수(외국어대·과학사)는 최근의 과학도서 출간 양상의 문제점으로 ▲외국 저자물 번역에 의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번역가의 부족, 통일된 과학용어의 미정립, 상업성에 급급한 졸속번역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번역수준의 문제 ▲흥미와 편집기교를 앞세우는 책의 실제 내용성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과학자들이 과학의 대중화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책이라도 건전하고 장기적인 중요성을 가진 책을 만들겠다는 출판계의 사명감과 과학진흥의 근간이 되는 과학도서의 출판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박남정 기자